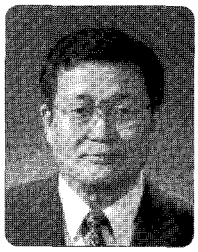
돼지고기 수출재개를 위한 조건과 예상시기



최 홍 렬 사무국장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 수출재개를 위한 여건

'99년 3월 국내 양돈관련 업계가 주축이 되어 돼지콜레라 조기박멸을 위해 민간방역단체의 활동을 시작한 게 어느새 2년반이 지났다.

돈육수출이 양돈산업의 살길이라며 수출확대를 위한 돼지콜레라 근절활동에 매달리다가 작년 3월 구제역이 발생한 후에는 수출은 즉시 정지되었고, 국내 양축농가의 고통과 막대한 손실을 겪으면서 1년반 동안은 안타까운 시간의 연속이었다.

그동안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다함께 애쓴 보람이 있어 1년 6개월만인 지난 9월19일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청정국 복귀를 인증받았지만, 완전해결은 결코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재발이 안되도록 하느냐가 더욱 중요함을 모두 알아야겠다.

구제역과 돼지콜레라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중국의 값싼 돼지고기와 연변의 한우고기 등의 수입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이를 막아낼 수 있는 안전벽은 바로 구제역과 돼지콜레라를 같이 근절하는 것이며, 이러한 방어벽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철저한 방역관리 뿐이라고 본다. 양돈농가 모두가 농장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방역기관과 관련단체는 제각각 맡은 역할에 차질없도록 책임을 다해야 하겠다.

지난 '99년에는 대일 돈육 수출량이 8만톤, 3억3천만달러를 수출하였으나 자리잡아가던 냉장돈육과 냉동돈육의 수출기반이 이제 무너진 느낌이라 안타까운 노릇이다.

구제역 발생이후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량 동향을 〈표1〉에서 보면, 국내산 돈육의 수출이 중단된 이후 미국·캐나

〈표1〉 일본의 돼지고기 국별 수입량

(단위 : 톤, %)

구 분	미 국	캐나다	덴마크	한 국	기 타	합 계	전년비(%)
1999	176,628 (27.1)	95,450 (14.6)	209,399 (32.1)	75,583 (11.6)	95,918 (14.7)	652,919 (100)	119.6
2000	201,238 (30.9)	128,150 (19.7)	195,280 (30.0)	717 (0.1)	125,422 (19.3)	650,807 (100)	99.7
2001	70,052 (37.1)	42,045 (22.2)	51.692 (27.3)		25,235 (13.4)	189,047 (100)	128.1

다·덴마크산 돼지고기 수입이 많이 증가되었으므로, 하루빨리 수출이 재개되어 이웃 일본이란 큰 시장에 돈육수출을 확대시켜야만 하겠다.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냉동돈육이나 냉장돈육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본시장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이라고 본다. 문제는 규격돈 생산을 위한 사육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하고, 품질이 우수하고 균일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육·가공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2. 대일수출 재개조건

돼지고기 대일수출 재개를 위해서는 일본측에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건을 조속히 대비하여 어느정도 수출기반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위생조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 협상과정에서 수출재개의 전망이 밝아질것으로 본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하고 청정화를 추진한 시·도별 실적을 보면, 제주도가 '99년 12월부터, 울릉도는 금년 2월부터였으며, 강원도는 지난 7월1일부터 청정화를 발표하였다. 다른 시·도지역은 금년 11월말까지 접종중지를 결정하여 12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접종중지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일본의 요구조건은, 우선 첫째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전국적으로 중단한 후 6개월이상 지나야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일정을 지난해 8월말에서 금년 3월로, 그리고 8월말에서 최종적으로 오는 11월말까지로 일정을 몇차례 조정하면서 국제기준에 의거 접종중단후 6개월 이후에 수출재개를 목표로 하였다. 현재 농장별 채혈검사결과 항체양성율이 '99년 후반부터 95%이상 유지하였고, 최근에는 97.2%를 보이고 있으며, 각 지역의 항원검사와 멧돼지에 대한 항원검사 결과에서도 야외바이러스 음성으로 확인되었기에, 접종중단 여건은 충분히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현재 47개 도도부현 전체가 예방접종을 원칙적으로 중단하였고, 다만 예방접종을 희망한 농가(10%)는 도도부현별로 허가를 받아 접종과정과 사후관리를 확인받고 있다.

수출재개를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작년도 경기·충남·충북지역에서 구제역 발생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 가축중 현재 잔류된 가축의 도태여부이다.

지난 7월말 현재의 백신접종 가축현황을 〈표2〉에서 보면, 접종가축 661,770두중 66,017두가 남아있으며, 돼지는 종돈과 번식돈 19,970두를 우선 조기 도태할 수 있도록

〈표2〉 구제역 예방접종가축('01.7.31현재)

축 종	접종두수	도축두수	잔여두수
한 우	69,478	54,501	14,977
젖 소	36,178	12,555	23,623
돼 지	528,368	508,398	19,970
염 소	19,753	17,230	2,523
사 슴	7,993	3,069	4,924
계	661,770	595,753	66,017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겠다.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되었다해도 백신접종 가축은 이동제한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조기도태해야 한다.

3. 수출재개 예상시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하고 청정화를 추진한 시·도별 실적을 보면, 제주도가 '99년 12월부터, 울릉도는 금년 2월부터였으며, 강원도는 지난 7월1일부터 청정화를 발표하였다.

다른 시·도지역은 금년 11월말까지 접종중지를 결정하여 12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접종중지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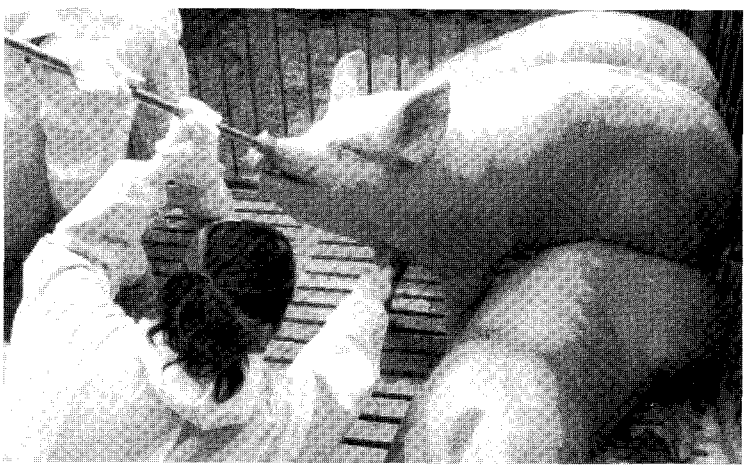
또한 구제역은 정부에서도 2002년 5월 개최되는 국제수역사무국 정기총회에서 청정국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예상외로 지난 9월19일 열린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에서 한국의 청정국 복귀를 인증받았기에, 이제 수출재개의 걸림돌은 해결되어 큰 힘이 되고 있다.

수출재개의 시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상되는 일본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도록 한 후, 한·일 양국간 협상과정에서 위생조건 마련, 일본조사단 입국, 현지조사 실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로 돈육수출이 재개될 시점은, 12월1일 전국적인 접종중단을 전제로 할 경우에 6개월이 경과하는 2002년 5월말 이후에 재개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에는 돼지콜레라 비발생지역 및 구제역 청정화 지역으로 인증받았기에 일본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내륙지역 보다는 먼저 별도로 수출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재개 시점을 예견하기는 여러조건 때문에 어려운 문제이나, 우선문제는 접종중단후 방역관리를 어떻게 하여 비발생을 유지하는냐에 달려

▼돼지콜레라 채혈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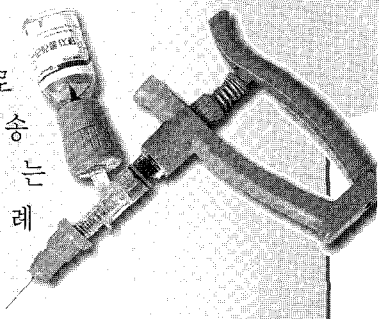


있고, 또한 구제역만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길 뿐이다.

4. 향후과제

구제역 청정국 인증으로 돈육수출 재개를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해야겠지만, 우리의 주변국 여건을 보면 온통 구제역 발생국이 인접돼 있고, 세계 각 지역과 인적·물적교류가 확대되어 공·항만을 통한 구제역이 유입될 수 있는 위험이 점점 커짐에 따라, 재발방지에 최대한 힘을 쏟아야만 한다. 또한, 내년도의 수출재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돼지고기의 품질개선이 선행되어야만 수출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우선적으로 도축시설과 돈육가공과정의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위생관리를 대폭 강화해야하며, 차후 수출돈육이 PSE(물돼지) 또는 잔류물질 검사 불합격 등으로 반송되는 사례가



없도록 돈육위생관리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있어야만 한다. 지금 당장 돈육가격 하락으로 농장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될지라도 양돈업계 모두가 앞으로의 희망을 갖고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빌며 이만 줄인다. 양돈

생석회 · 소석회
● 산성폐수 및 오수정화
● 축사소독 및 악취제거
● 충란 및 병원균 살균
● 유기질 분해촉진
● 산성 토양 개량(pH안정)
영월 석회 공업사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250
전화:(033)372-5837,5618 / (033)372-5296,6878
FAX:(033)372-5889 야간:(033)372-5293